

진리를 끝까지 가까이 하면
눈은 산눈빛처럼 우뚝 빛나고,
드름 멀리하고 어둠에 살면
밤에 쓴 화살처럼 보이지 않네.
(法初經·광연품 331절)

東大新聞

발행처	경북대학교	동대신문사
발행일	1991년 1월 1일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2267-8577)
발행시간	주간	FAX (02)279-1270
발행부수	1,000부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241-4132)
인쇄	인쇄	인쇄

제 1065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 3 등록번호(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3년)1월1일 (화요일) 【 1 】

승리의시대 자주의 여념은 통일인 한길로



〈그림=장진영·민족미술협회의〉

노정권은 방북탄압 즉각 중단하라

'91 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후기 분할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6	영어영문학과 20	영어영문학과 12
이과대학	수학과 16	물리학과 16	화학학과 16
법과대학	법학과 3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16	행정학과 16	
경상대학	경제학과 20	경영학과 22	무역학과 22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6	전자계산학과 48	건축공학과 16
합계			576명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6		
자연과학대학	화학학과 20	조경학과 20	산림인간공학과 16
법정대학	법학과 24	법학과 24	
상경대학	경제학과 32	무역학과 30	회계학과 30
의과대학	의학과 20	정보관리학과 16	
합계			336명

2. 원서교부 및 접수

(1)원서교부

가. 교부:1990. 12. 29(토)~91. 1. 7(월)
나. 접수:1991. 1. 3(목)~1. 7(월) 17:00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함

다. 원서교부 장소

- ①서울 및 경주 각 캠퍼스
- ②교보문고(광희문)
- ③종로시직(종로 2가)
- ④교인문고(천호동 신사거리)
- ⑤동화시직(시하철 강남역)
- ⑥신세계백화점(본점·영동점·비어리점·동방프라자)
- ⑦한가람문고(고속터미널)
- ⑧동부시직(부산 서면로터리)
- ⑨서울문고(삼성동 무역센터내)
- ⑩은행

은행명	해당지역
국민은행	수원, 인천, 대전, 청주, 대구, 광주, 전주, 부산, 제주, 강릉지점
소흥은행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마산, 경주, 대전, 춘천, 강릉, 제주지점
상업은행	부산, 광주, 전주, 대구, 마산, 청주, 대전, 춘천, 속초, 제주지점
한일은행	영인1부, 진사동, 수원, 인천, 대전, 경주, 대구, 포항, 광주, 전주, 진주, 부산, 제주, 춘천지점

(2)원서접수

- ①서울캠퍼스: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 ②경주캠퍼스: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③각 캠퍼스 교부과

3. 전형방법

학력고사	교교대신	합계
340명(70%)	145.7명(30%)	485.7명(100%)

4. 신입생 장학안내

장학명	장학금액	서울캠퍼스 지급조건	경주캠퍼스 지급조건
명진특별장학	입학금·등록금 면제 원30만원 지급 (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10점이상	학력고사 310점이상
명진장학	입학금·등록금 면제 원20만원 지급 (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이상	학력고사 300점이상
희림장학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학력고사 295점이상	학력고사 295점이상
혜화장학	대학 4년간 수업료 전액	학력고사 290점이상	학력고사 275점이상
동국장학	대학 4년간 수업료 반액		학력고사 265점이상
일반장학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함.		학력고사 255점이상

1. 경주캠퍼스 외에는 명진장학 이상에만 해당됨.
2. 서울캠퍼스 후기 입학자는 학벌장학 이상에만 해당됨.
3. 4년간 계속 지급되며, 학기말 성적이 B-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4. 명진특별장학으로 선발된 자는 해외자매교 유학생 선발시 추천함.

-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02)267-8131~9, (02)267-8141~5
-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0561)2-0131~6, (0561)43-1011~20

사설

일방적으로 등록금 책정 말라

내년도 등록금 책정을 놓고 학교당국과 학생측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국 사립대학 기초조정실정협의회에서 밝힌 15~20% 인상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소리를 들은 터에 설상가상으로 학교당국에서 25%인상을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거의 충격을 금할수 없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라도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어 한다는 것에는 대다수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뀌 말해 교육재정확보의 측면에서 등록금이 필수불가결하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면 원칙과 정당한 인상액에 수위예치해 학교당국과 협의, 시행할 수 있다는 예가이며, 이는 물론 대중의 집중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놀라울게도 학교당국에서 학생을 비롯한 각 주체의 여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25%는 인상해야 가능하다는 논리는 아연실색할수 밖에 없다.

이는 바로 학교당국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단기적이고 투자없는 학원운영 혹은 실리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계단의 구

시대적 발상에 다른 아픔을 알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법적 교육요건을 갖추어도 못하고 있는 우리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현재보다 두배에서 세배는 올려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등록금 책정-예산확정-에 학생·직원·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그 대학의 운영을 주인들이 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학원의 자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수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 사립대의 경우보다도 등록금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대학의 경우(83%), 건강할 재단 건설이 필수불가결하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학교당국의 등록금 인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등록금은 교육재정 3자공부담의 원칙 속에서 국가-재단-학생의 공동 부담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단은 대오 각성하고, 학교당국은 등록금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교 당국은 다시는 일방적으로 25%인상을 주장하지 말라.

정기국회가 남겨준 교훈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국회의원이 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정기국회기 위와 같은 공허한 물음만을 남기고 온갖 추측적인 모습만을 보인채 끝이었다. 우리는 ‘뻔한 놀음’이라는 자조적인 정치불신을 지나 ‘두고보자라는 적대감을 다져가는 국민의식의 성장을 보여 달갑다’ ‘국민을 우리라는 기존 정치권의 말로 예고하고자 한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추속국회가 되리 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1월의 기만적인 3당야합과 7-14 날치기법안처리 과정의 어마로 야당원들이 추사당하고 회기의 70%를 공전시키며 당리당략을 위해 목숨을 이진투구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 준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정감사마저 법정기간20일의 반도 못채우는 7일간의 회기로 마쳤으며 자료요구의 진수도 예년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쳤다.

또한, 예산안의 심의과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27조원에 이르는 나라살림의 예비심사는 이틀만에 처리됐고, 농민들의 생존권요구인 수매가는 겨우 7%인상만으로

처리해버리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세비는 23%를 올리는 파격적인 행동마저 서슴지 않는 작태를 연출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의 출처차리만 아니라 국민얼굴에 먹칠까지 하는 장면에 가서는 더욱 할 말이 없지는데 주한미군교용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의 편지함장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원의정칙도 법치 않은 채 국민 호우머니를 훔쳐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이다. 한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이 현순간에 짓밟힌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국회는 92-93년의 정치적인 대적들을 앞둔 민주당의 장기포석으로 각종 선심용 예산의 증액, 인기부-보안사등을 강화함으로써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국회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가오는 91년은 민중중시시대의 서막, 자주성회복의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

東國漫評



송태영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기대와 희망이었던 제6공화국이 바야흐로 불과 2년여의 임기를 남겨놓고 1991년을 맞이했다.

그간 북방외교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정진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었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란 외교로 먹고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민생문제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치 즉,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자고로 정치의 처음이요 끝이었다는 얘기다. 내치를 잘 하면 외교나 국방은 저절로 잘 될 수 밖에 없다는 실이 나온 법도 하다.

이제는, 일반국민에게는 물가, 치안, 주택, 상수도, 공해와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껏 6공화국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약속해 놓고 내내통령 취임의 3주년을 맞게 되는데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선거는 실시되지 못할 전망이다.

물론 1991년도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하니 6월30일 이전까지는 실시하겠다는 말인데 그간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작 선거일이 공교되게 가까운 아무도 믿어줄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지방의원선거 실시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로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중앙에서 빚빚의 당수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던 정당들이 적어도 시·도청소재지까지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의 지방화시대를 맞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권력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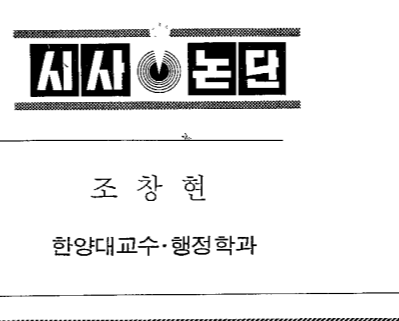
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되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직할시장·도지사·군수·시장할 것 없이 중앙임명인만큼 자기가 부임한 지역의 임무를 처리하면서도 그 결과가 주민에게 어떻게 미칠 것

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다.

셋째로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금까지 두터운 유층내지 유층상태에서 지방부서의 역유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지방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까지 시골에서는 미망한 일자리가 없어 서서물 또는 다른 대도시로 자기 고장을 떠났으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인재뿐만 아니라 이미 고향을 떠났던 인재까지 자기 고향에 일감을 찾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도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도 적급도 높고 승진기회도 많았으나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될 차례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부진과 직위취위에서 공무원의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조창현

한양대교수·행정학과

지자체 법안통과의 의미와 전망

중하중 중앙정당도 권력을 집중시켜 왔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권력보다도 정당이 더한 중앙집권체제였다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중앙정당에서 좋아하는 인물이라도 그 지역에서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계진출이 어렵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 정당들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비민주성이 점차적으로

인가를 걱정하기 보다는 그것이 입명 권자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더 걱정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이 지방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마음에 드는 행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이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지방공무원도 이제부터는 좀더 소신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에 대해 주

무엇이라고 어느 신문사에서 말하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 기자들이 어떻게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동포가 만난 이곳은 어땠나를 사실 보도하고 그 분위기를 읽었어야 했다.

분단된지 47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이제의 정면 생각해야 한다. 민족의 한구성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그리고 통일된 강산에서 너를 위해 북과 남을 다스린다는 것을 위해 북과 남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계 하고자 하는가?

계급투쟁이 고양되는 추세속에서 서서히 달아오르자 노경권은 넓은 권력을 부동케하고 넓어오는 노동해방사회의 불명의를 손바닥으로 가리우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 속에서 노경권이 말했듯이 민학원을 남한 최대의 권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노맹의 허부조직으로 놓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동맹과 민학원을 추종하기에 이르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투쟁하던 동맹의 전신으로 투쟁하던 동맹이 있었다. 이 시간 차디찬 암흑의 거리에서 파수와 숨막히는 숨바꼭질에서도 투쟁적 관점을 잃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친구로서 자랑스레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다.

동지들! 방학이라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수세성을 극복하는 것은 적진 깊숙이 해방의 불명의를 내리꽂아 적들을 당혹시키게 하는 방법과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사회연대화시계열로써 근거없는 맹목적 투쟁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건 동맹적 관점을 지니지 못하면 역전은 불가하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동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길바닥에서 동지를 남겨 두고 말 것인가이다. 물론 전자는 정답이다. 동맹의 혁명론은 우리의 또 거울은 가슴으로 동지적 애정으로 지켜내자.

일린글터

방문 북한기자 보며 조국은 하나 확인 언론은 반통일적인 왜곡보도 말아야

피는 하나로 흐르고/숨은 하나로 통한다/지치고 열락된 치마 아래서/겨레의 터는 금이 가고/.....가너린 인간의 숨결/백년을 이어가는데/하나로 흐르는 기쁨의 맥이 어찌 만년인 들 못 이어가겠느냐/.....겨레의 맥이 하나인 날/대추빛 열매의/나의 할아버지는 웃고 있다.

이 시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쓴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에 살면서 하나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는 한 소년의 소박한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이 아니고 한반도를 덮고 사는 나의 얘기로 우리의 소원이기에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갈라진 아픔을 보듬고자 하는 것이다.

그날도(12일) 북한 기자들이 동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 마치 외계인이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처럼 놀라웠다. ‘정말 뽕이 달리고 늑대처럼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반복 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 한반도 직접 본 적이 없기에 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 것이다. 빨리 달려가고픈 마음이었지만 멀리

는 마음을 가라앉혀 총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분위기는 마치 봉일이 빈방 감동적이었다. 북한의 학우들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하며 하얀 편지를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북한 기자들의 얼굴을 보며 그 손을 보며 ‘정말 나의 동포구나라는 전율이 다다랐다. 갑자기 쓰러나 피라 해야 할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마침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정리하려 하고 있었기에 그 노랫말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자고 몇자 적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다. 북한 기자들은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뭘 주고 싶어 꺼내는 모습이였다. 우리도 뭘 주고 싶어 없을까 하다가 마침 선물 받은 참교육 목걸이가 있어 꼭 걸 걸어주었다. 이 순간부터 내가 아니 통일을 원하는 우리가 언론의 배후로가 될지는 미처 몰랐다. 목걸이를 준 나의 마음이 어찌 글로써 표현이 될 것이며 그것을 받는 북쪽 동포의 감동은 어찌 말로 다 하겠

는가. 답례품으로 그 중요한 땀겨울을 준 그 기자의 마음 또한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하지만 언론은 우리가 북한의 정치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처럼 보도했다. 정말 우리는 놀아난 것인가. 땀겨울을 많이 주자 금방 땀이 칠것은 행동이 아니고

유영순 (사법대 국교과)

사노맹, 관련 다시 불어닥친 구속바람 뜨거운 동지애로 동맹의 혁명론 지키자

90년 12월5일 오후 10시30분 일명 ‘동맹작전’은 학교앞에 있는 녹두서점을 시발로 개시되었다. 서점에서 책을 보던 학우들의 무차별적 연행은 시작으로 7일 새벽 3시 박원주(총학생회장) 선배가 집에서 연행당하는 것과 함께 5명의 선배 동료도 더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더 연행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두리터거렸다. 단항스럽게 주위를 두리터거렸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 내 곁에 있어야 할 선배가 돌아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동판에서 커피 한잔을 건네주던 친구들이 대부분 실에

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죄목으로 철야조사를 받고있다.

그렇다! 민족을 열연하고 민족의 처절한 고통을 함께 하려하는 자, 조국의 모순을 혁파하려는 자 모두가 저를 말하는 죄의 폭력과 행방이라는 살림기를 하나 더 붙여 반국가단체구성이라는 국가방해법(?)에 걸려 고통받았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를 물어 가도무용하다. 91년의 대적들을 너무나도 똘똘 예상하고 있는 노경권은 무엇을 어떻게

최성순 (경상대 경제학과)

동맹 광장

☞ 밝아오는 91년의 아침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주의 시대, 승리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불신과 침체를 벗어던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될 때입니다. ‘동약사랑’ ‘조국사랑’의 한길에 떠나없이 나갈 때입니다. 자랑찬 민족중흥 제23대 총학생회는 1만학우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동약사랑 조국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대협의 전봉’ ‘학자부의 모범’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23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민족중흥 학우들의 마음을 과감히 표출할 수 있도록 통로와 참여공간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도 노력하겠습니다.

23대 총학생회는 1만학우의 친근한 벗이고 싶습니다.

—제 23대 총학생회

신뢰받는 학생회건설의 힘찬의지를 가슴에 안고 제7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총진대-총진회 지면으로나마 학우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해를 유난히도 즐겁고. 그러나 등록금 투쟁, 야간교류 정상화투쟁에서 조국통일 투쟁까지 학우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학생회의 건설은 학우여러분을 신뢰하고 학우여러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달래 꽃 화사하게 피어나는 동약의 교정에서 다시 만납시다.

새해 복 많이 쟁취합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

안녕하십니까?

91년 밝아오는 노동해방의 햇살을 자랑한 동약의 일반학우와 오복하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못해 외로운 가슴 시퍼렇게 멎은 자, ‘민중사랑’의 뜨거운 가슴이 넘쳐 흐르는 자, 민족문화의 사령탑 제7대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찾아 주시면 3천 동아리의 울림을 이쁨으로 모든 동약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학우여러분.

—민중문화의 사령탑 제7대 동아리 연합회

하나무의 눈부심을 사해하는 찬란함으로!! 사랑하는 사법대 학우여러분, 학우고대하던 1991년이 열렸습니다.

—사법대 학생회

평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1년도에는 이미니 품과 같은 자주적 학생회를 교육 건설합니다.

—자주적 학생회건설을 위한 제23대 문과대 학생회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 건설에 협조해 메진하여 학생회 신뢰 회복에 역점을 두고, 국민생존권 압살하는 미제의 경제침략인 우부과이러온 반대 투쟁과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농과대 학생회

이땅 민주주의의 참예방과 평등을 위해, 노태우정권의 완전타도와 노동해방을 위해, 민중권력 수립의 2년까지 끝까지 투쟁합니다.

—제7대 총학생회

인박한 과곡, 91년을 사회과학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태우 정권 완전자도

—임시 민주정부 수립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에서 과학으로 민족민주 사회과학대 학생회

학우들이 원하는 곳에서 학우들이 원하는 것을 학우들에게 안겨주자

—학우들과 함께하는 제23대 경상대 학생회

자주없이 민주였다 미국놈들 몰아내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이과대 학생회

축하합니다

12월25일 안지숙 1월1일 정용기 1월2일 진용완

—사상 위 학행들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 학우들과 함께 거국적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헌신이를 비롯한 후배들이

1. 10(일일행) 이날이 무슨 날이냐구요? 사법대 전 부단대장 행승이 언니의 생일일래요. 틀리는 소문에 의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아들 딸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승언니를 사랑하는 후배 일동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따뜻한 군고구마가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이때에 맞춰 녹두서점에서 ‘행인의 군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중형(교육 85)형이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학비마련을 위해 팔립니다. 많이 사서 드세요.

중형현 화이팅! —교육학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교과의 명훈수 기인이랑 그에 버금가는 경자, 그리고 요조숙녀 수연이랑 언제나 성실한 미지와 혜수를 포함한 우리 동지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에 맞춰 녹두서점에서 ‘행인의 군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중형(교육 85)형이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학비마련을 위해 팔립니다. 많이 사서 드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귀인아! 너의 생활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이 되길 바란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새해 복 많이 챙겨라.

—사랑하는 학행이가

대망의 91년을 맞이하여 이젠 무관심의 벽을 깨고 추제로서 사법대 이변 교수초빙은 우리 의 사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교과 학생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교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교과의 명훈수 기인이랑 그에 버금가는 경자, 그리고 요조숙녀 수연이랑 언제나 성실한 미지와 혜수를 포함한 우리 동지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에 맞춰 녹두서점에서 ‘행인의 군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중형(교육 85)형이 따뜻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학비마련을 위해 팔립니다. 많이 사서 드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귀인아! 너의 생활 속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이 되길 바란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새해 복 많이 챙겨라.

—사랑하는 학행이가

종합보도

노정권은 방종탄압 즉각 중단하라

학교당국, 등록금 20% 인상할 듯

학생에게 교육재원확보 전가 곤란 총학, 인상 근거 요구하며 협상 전개

본교의 91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대략 25%선 안팎에서 결정될 것 같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대해 학생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내년도 등록금 20% 인상은 구립 21일 학교 총장실에서 가진 등록금 책정에 관한 학교당국 학생대표 간담회 석상에서 밝혀졌다. 申國柱총장을 비롯한 1심3차장과 23대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3) 부총학생회장 신원철(경제·3)군동 집행부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申총장은 경주캠퍼스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운용을 위해 기획실 예산조정과에서 최소한 25%는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 아직 결재를 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전국사립대학 기획조정실장협의회에서 내년도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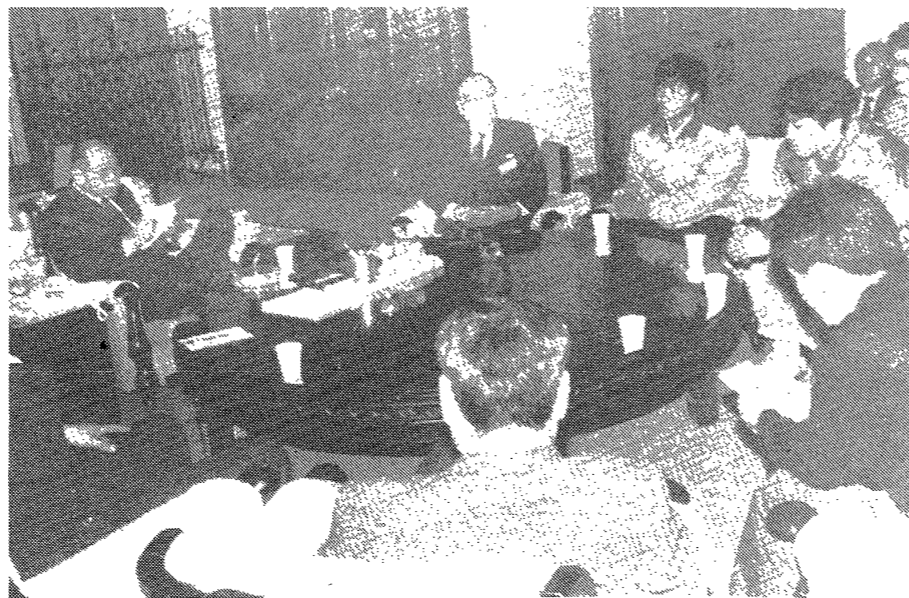
인상분을 대략 15~20%선을 결정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일반 사립대보다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본교의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학교측은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23대 총학 집행부는 등록금부담 소위(가칭)를 구성,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도 대체로 10%선 안팎까지는 인상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학생 등록금인상이 교육재정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사용된다면 일반 학생들의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인상안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사용자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학생등록금 인상만으로 모든 학교운용을 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있어 중층에 대한 올바른 결정인지 우려의 소리가 높다.

아울러 학생회에서는 내년도



23대 집행부 구성이후 처음으로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3)군동 6명은 구립21일 총장과 면담을 갖고 등록금에 대해 논의했다.

교직원 임금인상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한 등록금 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위

학생회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학교당국과 견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궁 은記者)

북한기자 총학생회 방문 뜨거운 통일이지 서로 확인

구립 12일 오전 11시 김평일 씨를 비롯한 북한기자단 10여 명이 본교 총학생회를 전격 방문했다.

분단 이후 북한 사람으로 남한의 대학 총학생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이다.

이날 북한의 김기자는 제23대 총학생회장 정우식(철학·3)군에게 학생회 건설방도와 학생들의 조동투쟁, 학생운동의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정군은 "자주적 방북요류, 미군철수, 군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 답하고 "통일을 향한 민중의 대의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사립대 학생회장 홍정의(국

교)군이 즉석에서 "남북의 모든 학생들이 조국통일에 앞장 서 나가자"는 내용의 글을 써 주었으며 본교와 김형직 사립대와의 자제결연을 하고 싶다는 말도 당부했다.

이어 북한기자들은 학생들과 어깨를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학생회관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오전 11시 40분경 숙소인 신라호텔로 되돌아갔다.

금년 학사일정 발표 3월4일 입학식 및 개강 등

교무처는 91학년도 학사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교무처가 발표한 학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3월2일 개학, 3월4일 입학식 및 개강, 6월3일부터 5일까지 2학기 수강신청, 6

월24일부터 8월18일까지 하계 방학, 8월12일부터 23일까지 2학기 등록, 8월19일 2학기 개강,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9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2월9일부터 92년 2월29일까지, 동계 방학, 92년 2월25일 91학년도 학위수여식, 2월20일부터 28일까지 1학기 등록 등이다.

‘민학련’ 12명 연행 학생운동탄압 또 드러내

구립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민주주의 학생연맹'과 관련 학자투위장장 박정규(국문·4)군과 총학기회부장 한중서(전기·4)군 12명이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9명이 구속되었다.

'동학작전'이라 명명된 이번 사건은 구립 5일 오후 10시30분경 녹두서점에 치안본부대공과 형사 40여명이 들이닥쳐 녹두서점 주인과 학생 등 10여명을 연행하고 다음날인 6일 새벽에는 기뻐수색을 벌여 경찰차 한 대와 학생과 관련된 인동 명의의 5만원을 비롯한 지폐현금23만원, 일일차집수익 23천3천7백원, 도서판매수익금 9만4천8백원을 포함, 총55만8천5백원의 수익금이 마련했다.

한편, 이 수의금에 '반미구국전선' 관련 구속자 및 고대 구속자 영지금으로 쓰여질 계획이

교수 동정

▲曹永祿(사학) = 오는 20일부터 2월9일까지 북경대학 사학과 주교 학술심포지움에 참석하러 중국체류.

▲任致雄(사학) = 오는 5일부터 2월10일까지 인류학 자료수집하러 미국체류.

▲朴仁國(농업생명학) = 오는 (1월)부터 2월14일까지 유전공학공동연구자 미국에 체류.

▲張大友(전자공학) = 지난 달 19일부터 22일까지 'International computer symposium 1990'에 논문발표를 위해 대만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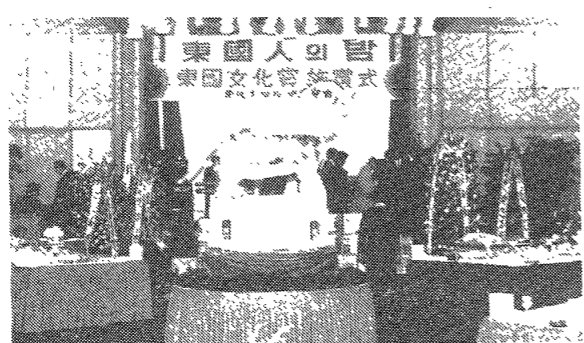
▲許正植(정보관리) 林福國(한의학) 曺光燦(한의학) = 오는 1월말부터 2월초에 중국, 소련 및 동구권에 90학년도 동계 대학교수 국외연수차 출국 예정.

‘동국인의 밤’ 열려 동국문화상 권상로 - 양주동박사

'제19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총동창회 주최로 구립19일 오후 6시30분부터 鄭在植(정치·52)총동창회장, 申國柱총장, 吳棟國이사장 崔載九교문을 비롯한 각계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호텔소피텔 엠베서리(2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鄭회장은 식사를 통해 "총동창회 1백여년 기념 모금운동으로 마련된 5억 원으로 91년부터 교정에 총동창회관 건립에 착수하여 국제 학생세미나 공간을 확보하고, 만해 한용운선생 연구사업을 진행시켜 민족사학의 자긍심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申총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가 공인하는 본교가 근대에 들어 침체국면에 처해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91년 한 해는 재민·동창·학교당국 등 동국인 모두가 동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교수·학



생·직원이 대동단결해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동국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한 동국문화대상은 건학이념부문에 모교 초대총장 권 대학원장을 역임한 故 退耕權相老박사, 학술부문에 향가 연구및 국문학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故 無涯梁柱東박사에 게 각각 수여했다. 이어 동국을 빛낸 각계 동문들에게 공로

‘동국탐험대’ 탐사

우리나라 최장 수중동굴(총연장 65km)로 알려진 화진굴은 본 탐험대가 지난 5월 수로부분 70m지점까지 탐험한 바 있으며 이번 동계탐험에서는 계수로(30m)의 평정선과 연결됐을 것으로 보이는 '양면복수굴'을 탐험하게 된다.

김성철군 조사보고 훈방

'반미구국전선'사건과 관련, 서울캠퍼스 김성철(인철·4)군이 구립3일 새벽 부산에서 불법연행된 뒤 이틀만 구립5일 훈방으로 풀려났다.

화염병투척과 집시범위안으로 현재 집행유예중인 김군은 부산법정에서 신검을 받고 상항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다 잠복중이던 사복경찰에 강제연행돼 치안본부 대공3과(총제부)에서 반미구국전선 관련 여부를 조사받고 훈방조치됐다.

보수

없었던 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적으로만 여겨왔던 소련과 평화와 경제협정을 맺음으로써 어느새 이에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 듯 하다.

같은 시간에 서울에선 남북한 총리회담에서 군축과 상호 불가침에 대한 한 번의 진행되었고, 북한의 전통음악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일수경 양에 의해 북한

에게서 알려진 한 무명 작곡가의 동요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오랜 세월동안 '얼이 붙었던 남북한인의 마음을 융화시키면서 눈물겨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끝날줄 모르고 거듭거듭 황창되었던 장면이다. 그 순간엔 이태를 로기라는 실체화면 淸芬에 의해 찢겨져 퍼올리고 고통 받아 왔던 우리 민족의 깊은

하나의 지구촌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분단가족인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동시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군사비와 교육과 사회 복지로 흘러들고있던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더불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李芝洙

‘불교대학원’ 신설에 즈음하여

귀의삼보 하옵고,
동국대학교는 구한말(1906년) 한국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세운 민족의 사학이며 불교교육의 요람입니다. 따라서 본교의 교육이념은 지혜와 자비에 의거한 자아완성과 불국경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학이념아래 개교 84년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본교에서는 비록 만시지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금번 본교 교육목표와 이념에 가일층 부합하는 '불교대학원'의 신설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인간성의 기계화 및 물질화와 종교적 도덕적 소양이 고갈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불교교육을 통한 인간화·민주화·종교화를 목적으로 본대학원을 설립하게된 것은 인간의 구원과 사회교화를 위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니다.

아울러 국내 불교인구가 2,000만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 교육의 현대화, 조직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과 교단이 연계하여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문화 시켜 조직 및 포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교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를 적체적소에 활용하고 전국 사찰의 증진승려와 1만여 제자 전법사를 교리적·신앙적으로 체계있게 교육하여 한국불교의 현대화·학문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세계화 하는데도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므로 석사과정은 물론 연구과정 까지도 포함한 불교전문대학원의 신설은, 본교는 물론 교계의 자랑이요 거국적인 경사라 하겠습니니다.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1991년 1월 1일

1991학년도 전기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7. 전형장소: 불교대학원 교학과에 게시함
8. 특 전
1) 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2) 조계종 재직승려, 공무원, 군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관리자과정
1. 모집인원: 00명
2. 자격 및 전형 방법
가. 자격
1)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2) 각 종단의 간부
3)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4) 각 불교 교양대학 이수자
5)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나. 전형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1년 1월7일부터 1월18일까지
(평일 09:00~17:00까지)
4. 전형일자: 1991년 1월26일(토) 14:00
5. 전형장소: 불교대학원 교학과에 게시함
6. 특 전
1)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2) 구미를 비롯한 각종 자매교와 학술교류 및 상호방문
7. 기타지원사항 및 전공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과
전화: 직통: 269-8359 교환: 267-8131~9 267-8141~5 (구내 3444, 3445)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 녹 원
동국대학교총장 정치학박사 신 국 주

학대 특집

노정권은 방충탄압, 즉각 중단하라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함께 늘어나야

등록금 투쟁의 전망

91학년도 등록금이 2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단대별로 90만원에서부터 1백30만원까지 등록금이 책정되어 개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대폭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근거로 학교당국은 율가폭등, 교수·교직원 인건비 인상, 그리고 신규교수 채용자금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지만, 높은 인상률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9%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재단의 전입금 증액과 국고보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회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등록금투쟁을 위해 등록금투쟁소위원회(이하 등록투소위)를 발족, 치밀하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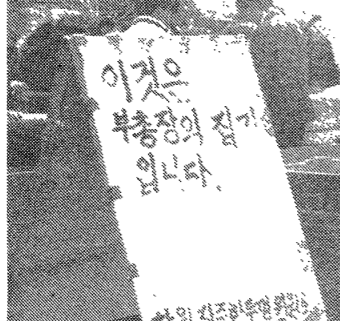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경우, 90년도 예산의 83%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 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과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과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학원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산을 학교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교수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등록투소위 정한신(정외3)군은 "우리가 전개해야 하는 등록금 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의 인상, 인하차원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 인상은 모든 학생들에게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말한다.

이렇듯 학생들은 상당부분 능동적으로 대처할 원칙을 가지고 그간



◇지난 1학기 등록금투쟁중 부총장실 집기를 끌어내고 있다.

실 개선, 명진관 화장실 증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인상의 부담을 모두 학부들에게 전가시키고, 재단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학교를 운영하려 하는 것은 이질적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대학도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한 학생의 얼굴에서 등록금투쟁이야말로 당연한 현실과의 싸움이란 것을

감히 재단으로 들어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단전입금만 늘어난 것처럼 보여 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학생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함께 주체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등록투소위는 "모든 투쟁이 그러하듯 대중의 관심과 열렬한 참여가 없으면 그 투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방학 중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잘 세워 새학기에 함께 결집해서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한다.

학생회 사업을 시작하는 첫 관문인 등록금 투쟁은 학자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기도 해, 이의 성패가 이후 투쟁의 고리가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비단 본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내는 교육세 증액의 절을 높이기 위한 목적 외에 전용된 돈이 90년도의 경우 64%나 된다.

물가인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주범이 한 정권임을 인식한다면 학교측과 공동 노력으로 국가보조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이윤과 체제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외 교육의 질과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은 수적인 부담원칙이라는 기묘한 논리로 학생들에게 떠넘겨 버리고 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재정 확보투쟁으로서의 등록금 투쟁은 재단과 국가, 그리고 학생의 3자 공동투쟁 형태로 비우어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대도 극히 적은 액수만이 재단과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대학마다 등록금투쟁이 존재하므로 등록금투쟁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본교는 다른 사립대와 비교해 중하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학원지주화의 관점에서 학생이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학의 주인으로서,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대학의 운영을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극히 원근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학원의 지주화와 민중 민주 인권의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비민주적인 문교부 정책을 올바르게 끌어내기 위해 '통일단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영란 기자)

91년도 신규교수채용 어떻게 되나 학생 참여의 공개채용 필요



◇지난 2학기 교수채용문제에 이사장실 점거중인 불교과 학생들

한 대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며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민주적 교수가 있느냐가 평가기준의 하나가 되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이 교수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민주적 소양을 엄격히 평가해야 하며, 그 채용과정 또한 공정하고 공개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재 본교의 경우, 91년도 신규교수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규교수를 심사하는 기준들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없지않아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데는 무리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91년도 신규교수채용예정인원은 서울캠퍼스가 10개과(인도철학, 무역학, 회계학, 역사교육과, 농업생물학, 체육교육과, 영문과, 경제학, 경영학, 연극영화과)에 17명, 경주캠퍼스가 17개학과에 17명 등 총 2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규교수채용문제와 관련해 농업생물학과의 경우, 과 교수들이 지난해 5월 학교측에 신규교수채용신청을 하면서 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더구나 신청한 전공분야가 동물분류(절지동물)로 되어 있어 학과에서 필요한 교과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 채용될 교수의 전공분야는 농생과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의 교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공선택담당

아 채용을 하지 못했음에도 올해 채용학과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그 한 예이다.

학교측에서는 정보관리학과를 배제시킨 이유로 "과에 알맞은 전공의 교수를 찾는 기간동안 교수총원이 필요한 다른 과의 교수를 채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신규교수가 절실히 필요한 학과가 수없이 많은데 농생과의 '절지동물분류'와 체육과의 '발레'전공을 학생들에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교과목의 교수를 채용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수 대 학생수의 비율이 낮은 학과부터 충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본교의 모든 학과에 교수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교수채용은 단 1회의 신문공고를 통한 모집이 아닌 각과별 교수충원 확보의 장단기

전에 있어 생각지도 못할 교수들의 자의적 심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올바른 '학술권'을 찾아가는 일은 공개채용의 공개성을 시발로 교육과정 개편요구권, 교과목 선택권, 강의법 개선요구권등을 쟁취해나가는 순서로 진행돼야 하며, 지금까지 각 과에따라 임의적으로 실시된 평가제를 확고한 제도로 정착시켜내는 일도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공개채용을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렇게 학생이 교수를 뽑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인맥과 파벌이 무성한 우리의 현실에서 올바르게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심사배점표의 항목으로

정보관리학과, 채용 공고냈으나 2년째 배제 교수평가제 통한 인맥·파벌 탈피 시급

을 뽑는다는 것이다. 농생과 학생회측에서는 이번 신규교수채용과정에서 대해 △학생들과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 △교과목 자체가 학과의 실정에 걸맞지 않다는 점등을 들어 특정인용 교수로 영입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농생과 기획부장은 이에대해 "농과에 지난해 11월중 동물분류 채용을 기증했던 김모강사가 우연히 이번 채용분야의 전공과 일치하며, 교수들의 면담중 그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되고있음을 비추어 보아 이미 특정인용 교수로 내정해놓고 있다는 추측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공개성의 원칙다움으로 심사기준이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심사기준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있어 후보자들의 실질적 자질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교과위원장 정경현(교육·87)군은 "후보자 심사기준을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해서 후보자 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지속적인 교수채용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과단위에서는 교수공개채용과정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특히 본교의 고질적 병폐인 인맥과 파벌에 의한 교수채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논의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공개모집뿐만 아닌 좋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스카우트 제나 특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지적도 있다.

신규교수채용에 있어 공개성의 원칙다움으로 심사기준이 문제시 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심사기준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있어 후보자들의 실질적 자질을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교과위원장 정경현(교육·87)군은 "후보자 심사기준을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해서 후보자 추

태있는 학력, 경력, 연구업적, 연령, 연구논문(저서)평가등이 너무 형식적으로 점수배정이 돼있어 후보자의 학문적 자질을 심사하기에는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를들어 연구업적을 심사하는데 있어 단독저서=10점, 공동저서(2인공저)=5점, 박사학위논문=10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1권을 발표한 후보자나 10권을 발표한 후보자나 똑같은 점수를 받도록 돼있어, 저서의 양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양=질'은 아니더라도 양적인 부분까지 반영되는 심사기준이 검토돼야 한다.

본교의 경우, 이번 1월중에 91년도 1학기 신규교수채용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측에선 방학중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개채용의 채용에 있어서의 대중적 참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기용 기자)

동약로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저희 학교를 찾아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도 남녘의 학우들을 만나 통일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구암 12일 오전 11시 북한기자단 10여명이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실을 방문했다.

얼마전 남북통일촉구대회때 동대학생들 만나 그 인연으로 동대 기자는 수순한 차림의 열정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회의도중 들어온 것을 미안해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시간이 20여분 흘렀을 무렵 총학생회는 처음의 산만했던 것과 달리 북한사람도 우리와 같은 동료라는 등질감,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몰랐다는 자구심과 함께 하나의 민족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생활해 오며 다른 한쪽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북녘의 학우들과 하루빨리 만나 따른한 사랑방에서 막걸리잔 기울이며 연애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총학생회장의 구수한 말에 김기자도 "우리 힘

으로 통일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통일촉구대회때 동대학생들 만나 그 인연으로 동대 기자는 수순한 차림의 열정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회의도중 들어온 것을 미안해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시간이 20여분 흘렀을 무렵 총학생회는 처음의 산만했던 것과 달리 북한사람도 우리와 같은 동료라는 등질감,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몰랐다는 자구심과 함께 하나의 민족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생활해 오며 다른 한쪽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북녘의 학우들과 하루빨리 만나 따른한 사랑방에서 막걸리잔 기울이며 연애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총학생회장의 구수한 말에 김기자도 "우리 힘으로 통일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통일촉구대회때 동대학생들 만나 그 인연으로 동대 기자는 수순한 차림의 열정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회의도중 들어온 것을 미안해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시간이 20여분 흘렀을 무렵 총학생회는 처음의 산만했던 것과 달리 북한사람도 우리와 같은 동료라는 등질감,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몰랐다는 자구심과 함께 하나의 민족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생활해 오며 다른 한쪽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북녘의 학우들과 하루빨리 만나 따른한 사랑방에서 막걸리잔 기울이며 연애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총학생회장의 구수한 말에 김기자도 "우리 힘으로 통일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통일촉구대회때 동대학생들 만나 그 인연으로 동대 기자는 수순한 차림의 열정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회의도중 들어온 것을 미안해하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시간이 20여분 흘렀을 무렵 총학생회는 처음의 산만했던 것과 달리 북한사람도 우리와 같은 동료라는 등질감,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몰랐다는 자구심과 함께 하나의 민족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생활해 오며 다른 한쪽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분위기가 압도되었다.

"북녘의 학우들과 하루빨리 만나 따른한 사랑방에서 막걸리잔 기울이며 연애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총학생회장의 구수한 말에 김기자도 "우리 힘으로 통일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던 학생을 보더니 "자네는 통일외지를 원하니 않어?"라고 말해 쪽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학생회관 앞에서 한 여학생이 김기자에게 기념으로 전교조 목걸이를 걸어주자 김 기자는 "허허"하며 바로 자신의 길질성 뱃지를 그 여학생에게 달아줘 박수를 받았다.

기념행사를 마치고 나자 북한 기자들은 문득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낯선사람이 떠돌다니시피 하며 짧은 시간이 안타깝게도 그러나 보람있었다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튿날 주요 일간지들에는 '철없는 대학생'이란 제목하에 북한기자가 선전용을 했으니, 쫓아다니며 뱃지를 구걸(?)했다니 하는 칼럼기사가 실려 있었다.

"아? 이게 뭐야. 그때는 한겨레 사진기사와 한명밖에 없었는데" "순수한 만남을 이렇게 호도하더니" 어느 학생의 말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남궁은 기자>

(김영란 기자)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연변에서 온 교과서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중국 연변의 동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교환했습니다.

일마련 두산그룹 교사해외봉사단의 원인으로 중국 연변에 다녀 온 서울 대청중학교 오규자 선생님은 그곳의 동포 선생님들을 만나 예기치 않았던 중에 우연히 '조선어문'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우리말, 우리 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 놀라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문득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에 맞춤법의 차이가 있고 생소한 단어들도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의 교과서도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는 길에 '조선어문' 교과서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자유방탕의 길이 열리고 있는 이제는 조금씩 벗어난 우리말 우리 글도 다시 하나도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반갑고도 애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절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세월동안 조국이라도 잊어지지 않으면 하루 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두산그룹 THE DOOSAN GROUP

• 두산그룹은 중국 스산 및 동구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교과서, 우리말 사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과 책보내기운동에 함께 하실 분은 두산그룹 연변봉사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주소 : 동구구 동로 1가 11번지 연변대명 ■ 우편번호 : 110-121 ■ 전화번호 : 765-8151

심층취재

노동권은 방종탄압 즉각 중단하라

심층취재

91년도 학내 복지 문제를 점검한다.

학교채발행·전사원 수익통한 재단지원 '절실'

이·공계 실험실습비-동국관 도서관 건립등 시급 학내업소 2월 재계약시 식당·매점 직영화 추진

학내 어디를 가더라도 복지에 대한 요구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함은 우리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식당을 가도 강의실을 돌아봐도 화장실을 가도 답답한 실정에 푸념만을 늘어놓게 된다.

그럼 이같은 열악한 복지문제해결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23대 총학생회는 등록금부족소위 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동결부족에서 올해는 학생들의 요구안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록금정책을 구성하고 있으며 애교심고취를 위한 '동국사랑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재단과 학교당국은 개정된 학원정관에 의해 수익사업체를 기존의 장충수영장에서 부설 전자계산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단지원을 주목해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 경주병원개원, 포항병원 증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실에 학내에 산재해 있는 복지사업중 총학생회 올라온 요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재단혁신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총학생회

23대 총학생회는 선거과정에서 자주 학생회건설을 선언하면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간 돈은 다시 우리들의 손에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 하에 학내 각 복지사항을 학생복지위원회, 각과·단체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불교대

불교대는 본관건물을 학교 각 행정 부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다가 1, 2층이 지하형태로 되어 있다. 더욱이 조명, 환기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묘안이 없어 존재하는 공간이 이용이 곤란하고 있다.

본관내의 공간확보-선수권실, 요가실습실, 여학생휴게실등으로 공간이 좁아져서 본관 C201호 강의실과 공간이 역기능장으로 쓰이는 것을 복지공간 활용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조명시설의 추가설치-본관2층 복도는 어둡고 침묵조명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C203강의실의 보수-정리하여 되면 물이 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문과대

가장 낡고 오래된 명진관을 사용하고 있는 문과대는 2-3천여명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하나뿐인 상태로 이것만 보아도 그 정도는 심각하다.

침판-책걸상교체, 강의실과 복도의 휴지통 증설 및 교체, 침판발이개등 강의실부설복합보통 교과과와 문제해결

에 정정합의가 되어있고 학부위와 연계할 부분으로는 식수봉설치, 자판기 점검, 명진관 주변미화등이 있다.

또 명진관은 문·이과대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도서관냉난방설치, 명진관 앞 주차장제거와 휴식공간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각과 별로는 사학(5층 화장실설치), 영문-독문(과외학사대리), 일본-화학(학생회실 공간확보), 국문(과도시설 계속사용허가)등의 요구도 나와 있다.

이과대

이과대는 명진관을 문과대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 계열로서 실험실습기자재의 확보가 시급하다. 기자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컴퓨터교체 및 전산실마련-8bit가 17대, 32bit가 1대, 프린터가 3대등의 컴퓨터시설은 현재 고장이 나 있거나 보조시설(보안경, 예비전력부재)이 구비되지 않았다.

소모임을 위한 공간확보-2과 과에 몇개의 소모임이 있으나 토론장소로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또 과학생활실 인터넷설치, 화학·수학과 학생회실의 철문 교체등이 있다.

사·회·대

동국관 증축 주장이 계속 나오면서 남산공원개발에 의해 묶여있는 건축규제를 푸는 과정에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4개 단과대학과 5개 대학원을 수용하고 있는 동국관은 강의실,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들이 혼재돼 증축안이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험기간설정-타단대에 비해 고시준비생이 많은 사·회·대는 공부의 집중을 기하기 위해 시험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사물함증설-6백여명의 사회과학대학생들이 1백여개의 사물함을 이용하고 있다.

전화기설치-타학교가 직통전화기로 바뀌어 가는데 비해 아직도 다이얼식 교환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대

동국관을 이용하는 법과대, 경상대, 사·회·대, 이부대들은 공통적으로 공간확보를 호소하고 있으며 각 단과 복성에 필요한 요구들도 있다.

식당문제해결-동국관 지하식당은 음식질, 위생상태등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휴게공간(L·M·동 연결로비, 잔디밭)의 이용-2층 L·M 등 연결로비와 현관복도에 휴게의자를 설치하며 잔디밭에 의자시설 설치도 계획



복지 문제의 해결은 재단 혁신 투쟁에 달려 있으며 학교당국의 재단전입금 확충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동아리연합회

3천여명이 속해 활동하고있는 학생회관은 동아리방이 절대부족하고 기존의 시설도 낡아 보수를 요하고 있다.

중강당보수-중강당이 문화공연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객석 교체, 조명시설확충이 제기된다.

동아리공간확보-학생회관내 지하 보일러실 철거, 연화연관을 통한 공간확보를 검토중이나 엄청난 보일러 철거비용, 가정교과와 강의, 실습문제 등이 함께 걸려 쉽게 해결 될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학생회관 비상계단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위험, 3층에 자판기설치, 옥외화장실설치, 등·라미 사진 연구회용 쓰레기장의 공원화등 산재해 있는 복지사업의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한다는 게 동연의 입장이다.

공과대

이·공계열로서 주야 불배합이후 강의실확보가 시급하고 만해광장과 인접한 관계로 소음이 심해 수업에 방해받을 수 있다.

원호관 3층의 공용전산실 시설확충-1천4백여명이 PC-AT 29대와 프린터기대를 갖고 사용하며 하드디스크가 정차돼 있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이다.

사별대

체교과-체육관 지붕보수, 샤워실은 수 시설마련.

교육학과-조교실을 학림관내에 설치(현재 교수회관에 있음).

가정교과학과-전화기, 휴지판매기 설치.

지리교과과-암살내 수도장치.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매점·식당의 직영화-2월로 모든 학내업소들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학교측과 협의, 최대한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가능한 한 몇개는 직영화도 생각하고 있다.

복지매장조성-학내 입소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학복위수익금을 함께 기금으로 조성해 학교에 필요한 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학부복지위원회

생활환경조절시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직접운영한 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 곳의 하나가 학부복지위원회이다.

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다량관을 복지시설의 증합체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부과대	요 구 내 용
불교대	본관 1·2층 조명·환기시설 확충 선수권실·요가실습실 등 공간확보 C203 강의실 보수
문과대	책걸상교체, 식수봉설치 명진관 앞 주차장 폐기 과 어학실 마련
이과대	컴퓨터 교체 및 보조시설 확대 화학·수학과 철문교체
사·회·대	시험기간 설정 사물함 증설 과에 전화기 설치
경상대	동국관 식당 문제해결 휴게공간(L·M·동 연결로비, 잔디밭) 확보 도서관 확보(M502와 M503강의실 활용 계획)
농과대	농대도서관 냉난방 설치 및 도서확충 해관관 시설 보수(청정·조명등)
공과대	원호관3층 공용전산실 확장 기계공학과 신설
사별대	체육관 보수, 교육학과 조교실 학림관으로 이동 (현재 교수회관에 위치) 암살내 수도장치(지교과)
동아리연합회	중강당 조명시설관리, 동아리 공간 확보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

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병원 연내개원물류팀

지난 10월에 건물공사가 마무리되고 실내 가열, 리프팅, 의류연구실 등 몇가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재단 이시들과 총장의 결정이 미뤄진 채 빈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포항병원증축-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약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 포항병원은 지난 6월28일날 건축허가까지 받아 놓았으나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1년을 넘을시에는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설치등을 적극 융통 주축대수(180대)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대수 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된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경주노서동 교직원기숙사-79년도 구 건물을 구입하여 교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중 벽에 금이가고 누수등 붕괴위험과 노후관개로 89년 12월 20일 폐쇄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던 24명의 교수중 19명의 교수는 금강학사로 속수를 옮겨 현재 26명의 교수가 금강학사에 머무르고 있다.

노서동 교직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학교측은 50세대 규모의 5층건물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속수신축을 준비하였으나 李煥鎔총장에서 申樹培 총장서리로 총장이 교체되면서 申樹培 서리는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뿐 2학기부터 신축할 예정이었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폐쇄된 시고교수들은 금강학사에 머물게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수만큼 수용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서로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이용안내

구분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위치/전화	할인 및 편의 제공
도 지 기	한국도자기(주)	조원희 (757-5578-9)	세종호텔 전시장 (본교 김병준교수)	한국도자기 전체품 15% 할인

특집



○...동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직선에 의한 총장선거가 실시돼 2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선거 제도안 마련을 위한 3차 연석회의등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방안에 대해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공히 인식을 공유했으나 결국 교수회의의 전횡과 무능력으로 인해 그 결과는 주체를에게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

교수직선 총장후보



○...남북학생회담, 평양축전참가투쟁으로 진행되어온 통일투쟁이 '전면개방 자유원래'라는 구호아래 범민족대회로 이어져 자주적 민간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범민족대회는 남북고위급회담의 정부차원교류와는 별도로 범민련을 결성, 자주적 민간교류의 총집결지로 떠올랐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성한 학원을 군화발로 짓밟는 회원납입 잇달아 학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됐다. 이른바 '화염병 투척자'를 색출한다는 미명아래 자행된 학원납입은 경찰이 학교기물을 파괴하는 등 난동으로 이어져 학원을 지켜야 한다는 노력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1월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중필 3인이 기습적으로 3당통합을 밝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에 '민자당'은 각종 법안의 불법날치기 처리와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해 그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92, 93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만적인 3당야합

조직적 탄압가시화

“재판과정에서 진실 밝혀”
구치소에서 반년 '반미 구국전선'관련자
김병준·윤갑진·이우민 군
...[Detailed text about the case of Kim Byung-jun, Yun Gap-jin, and Lee Woo-min, who were arrested and held in a detention center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Anti-American National Salvation Front' (반미 구국전선).]

사립학교법 개악

재단의 사학독점 법으로 부추겨

개악된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Detailed text discussing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ivate Education Act (사립학교법) and the concerns that it would lead to the monopolization of private education by foundations (재단).]

'90 본사선정 10대 뉴스

새해벽두, 기만적인 3당야합과 전노협결성등으로 시작된 90년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알았던 5공독재보다 더한 탄압과 미국의 저강도전쟁전략이 한반도를 광풍했던 탄압했다. 하지만 남한민중의 자주적 진출은 기동할 탄압의 벽을 넘어, 통일투쟁으로 반독재투쟁으로 나아갔다. 지난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굽지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혁신하고 잘못된 것은 계승하는 정신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전진하자.
(편지자)



○...1월22일 집권 세력의 기만적인 3당야합에 맞서 같은 날 성대에서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같은 노동운동의 결집은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현대중공업파업투쟁, 5월 총파업등으로 민족민주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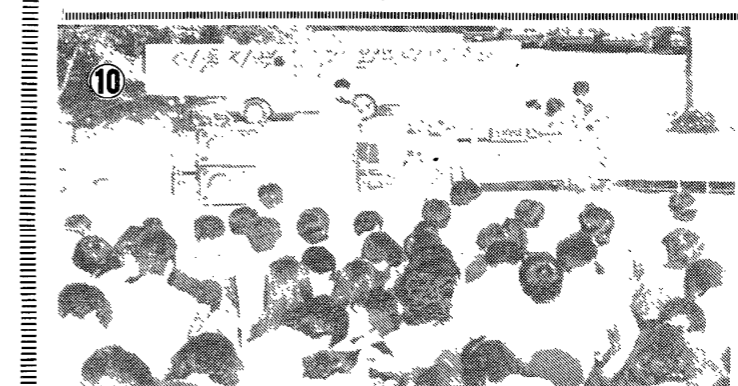
○...총학선거시기가 11월로 바뀌어 대의원 총회에 통과돼 실시됐다. 3월선거가 총학생회사업의 올바른 이월과 사업준비기간의 마련등에 문제 노정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돼 오던 중 통과된 것이다.



○...지난 봄에 우리신문에 연재됐던 기획시리즈 '신대 땅뜨와 조국통일'로 인해 우리신문사 사법1부장 이진형(사학3)군이 연행돼 탄압을 받았으나 시월 11일의 총학선거기간에는 '총학감시기사'로 인해 22대 총학선거가 신문을 불법 증거해 가는 등 정권조직을 수행했던 우리신문이 수난을 당했다.



○...5·9 민자당창당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중 새로나백화점 앞에서 투쟁하던 김진태(사학3)군이 전경들이 쓴 직격탄추위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다. 김진태군은 4차례의 대수술을 거쳐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을 가가스로 회복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봄에 우리신문에 연재됐던 기획시리즈 '신대 땅뜨와 조국통일'로 인해 우리신문사 사법1부장 이진형(사학3)군이 연행돼 탄압을 받았으나 시월 11일의 총학선거기간에는 '총학감시기사'로 인해 22대 총학선거가 신문을 불법 증거해 가는 등 정권조직을 수행했던 우리신문이 수난을 당했다.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정보! 파고다외국어학원의 人氣講座
S.L.E.美國人英語會話 (1~2)
VOCABULARY 22000
영어 득 해 R.C.A.
교과서 기초 영어
中國語
S.L.E.美國人英語會話 (3~4)
영어 청취력 A.F.K.N.
영어 득 해 R.C.A.
佛語 Mauer I·II
高級中國語
S.L.E.美國人英語會話 (고급)
영어 청취력 TOEFL L.C.
성문 종합 영어
프랑스인 회화
LADO 기초영어 회화 (I)
아 카 데 미 TOEFL
무역 영어
東京日本語讀本
LADO 기초영어 회화 (II)
이 재 욱 TOEFL
영어 실력 기초
SIDE BY SIDE 영어 회화 (I)
고득점 TOEFL 종합반
영어 실력 기초
SIDE BY SIDE 영어 회화 (II)
영 어 실 력 기 초

교양문화

학우들은 흔히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를 '학내 복지시설 지원의 물적대기부'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복위의 역할은 보다 광범위하며 각 단위 행사의 지원이나 학생 편의시설 확충을 포함한 학내 전반의 문화생활을 그 활동범위로 한다.

현재 자판기 복사기 운영권과 다량판 2층 매점의 직영권이 유일한 수익원이 되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와 학복위 위상에 맞는 사업전개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일잡점, 문화행사등 2차 단위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복위장학금, 방송 '저소득층' 학생, 학생복지시설의 부분적 지원등 수익의 금 모두가 학우들을 위한 복지사업 확충에 쓰여지고 있다.

특히 매년 동·하계 방학중에 실시되는 '저소득층'은 컴퓨터, 타자, 운전면허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명절 귀향차편을 마련하고, 사내주요 문화 행사를 배정하고 전통문화촌을 견학하는 등 특색있는 문화생활을 조성하는 생활문화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90년 학복위 사업은 각 단위 학복위와의 연대사업 부족,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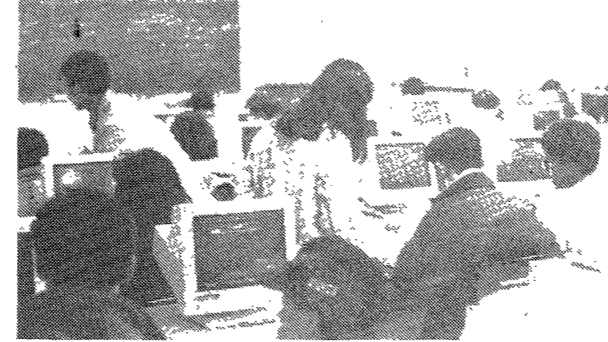
식당직영화등 학생복지사업 전개

탐방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중추축의 추진 미흡 등이 지적되는데 89년9월 안경점 직영화와 90년4월 심우장 개장때 지원된 물적 토대 등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학복위는 91년 주요사업으로 크게 학생식당 직영화, 구내 임대업소와의 계약약 시기에 임대료와 계약료를 복지기금으로 확보, 생활협동조합의 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학우와 함께 하는 행사 마련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90년 두차례의 학복위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듯이 학생복지사업의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주부의 위생상태로부터 음식의 양 질등 개선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식당 직영화를 바라고 있다. 외부 임대업과의 계약에 이루어지는 식당경영은 동학에서 생기는 이익의 외부유출을 초래하고 학내 복지시설로의 재원분배는 업자의 이익추구를 더욱 부



△사진은 방학중에 실시하는 저소득층 특강의 모습

적으로 밀접하지 못했던 학복위로서는 생활협동조합의 공동분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큰 고민거리라 하겠다. 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대중의 인식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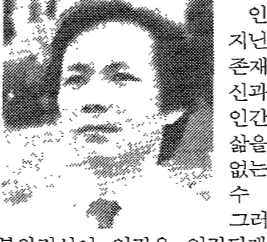
학복위 임시위원장 박동우(국문·3)군은 "학복위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구가 아니라 1만 동학인 모두가 주인이 되고 1만 학우에 의해

노정권은 방중탄압 즉각 중단하라



완전성의 세계에 대한유감

林虎一 (문과대·독문과 교수)



인간은 약점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신과 구별된다. 인간은 유한적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또 인간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연극에서 클라이막스라는 극의 절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강을 예고하고, 사상사에서 해결과 더불어 이상주의가 절정에 달했다 함은 이 사상이 곧 종언을 고하고 현실주의를 바빠질 것이다. 가장 커다란 식당직영화 문제부터 생활협동조합의 건설까지 동학 1만 학우의 주인정신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학복위 위원만으로는 역부족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병민記者)

과정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이겨운 작업을 동반한다해도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이 희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우뚝 솟은 인물들, 이른바 영웅이나 위대한 정치가, 학자, 철학자도 알고보면 미완성의 피조물이다. 20세기 독일문학의 거장 브레히트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역사적 '거물'을 완성자로 기승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을 권위의 노예로 만들었고, 급기야 인간 사회를 계급사회로 만들게 되었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 거물들도 인간적인 약점을 지닐 수 있고, 그들도 실수를 저지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킴으로써 기존의 역사기술은 인간의 비관적식을 말살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을 쓴 영웅 및 위인이랄 할지라도 일단 브레히트의 작품에 등장하면 여지없이 난도질당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성인으로 알려진 회담의 철인 스킨너도 브레히트의 작품에서는 폭음이 아까와 전쟁을 피해 다니는 비겁한 위선자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이도 힘과 권력에 굴복하여 진리를 부정하는 나약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듯 '소격효과'의 기법을 통해 브레히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의 유산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이 고정불변의 세계가 아닌 변화가능성을 지닌 세계임을 일깨워주려 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인간이 미완성의 존재이기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미완성의 인간성이 이룩할 수 있는 세계로 세상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다.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다가오는 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사회의 무관심속에 오늘도 지나간 어둠과 자기자신과 싸워나가는...

오랜여정의 양심수들, 그들은 자랑스런 이방에 태어나 보다 나은 사회, 사람답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날 행사는 먼저 민중운동을 하다 산화해가신 열시에의 특성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을 재해하는 여러악법들을 소개하는 노랫마음의 '악법철폐'가 그 막을 올렸다. 그에 이어 문학혁신회는 구속된 동지들을

노래공연·연극등으로 관객과 하나돼

양심수 문제 우리모두의 일로 일깨워줘

의 소리결절과 시인 고규태, 김남주씨와 문인환복사, 가수 정태준씨 그리고 민중노래 작곡가 안지환씨의 시와노래에 의해 민중시인 연구소에서 제작한 사건에서 공연장인구 전신실에서 열려 학생과 시민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위로하고 희망의 의지를 담은 시와 비록 최악한 목소리지만 '마른잎 다시살아나'를 열창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얻기도 했다. 그외에도 소리결절과 예음림 그리고 가수 정태준씨의 다양한 노래공연과 함께 '양심수의 하루'라는 연극이 있

생활속의 민중의학

金甲成

〈한의과대학 조교수·동국한방병원 침구과과장〉

"긴 겨울방학이 감기(感冒)로 시작하여 감기와 함께 날아왔습니다"는 학생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겨울이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 문안처럼 가장 조심해야 할것은 역시 감기라고 할 수 있다. 워낙 대중화된 병이요, 특정한 병명이나 기저 질환이 없이도 흔히 "Common Cold"라고 하는데 cold 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기의 원인을 cold, 즉 찬것에 상(傷)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같은 것 같다. 동양의학에서 감기의 증후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BC. 2~3세기에 중국의 장중평(張仲景)이 급성 열성(熱性) 질환의 진행과정을 상한(傷寒)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병의 초기 단계인 태양병(太陽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감기없는 겨울방학을"

지금의 급성 감기증상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태양병의 침입과정은 한시(寒時)가 인체의 내부(背脊)를 침범함으로써 발병이 되는데 태양경락이란 족태양 방광경



(足太陽 膀胱經)으로서 인체의 경락중 가장 길며 태양의 속성상 북방(北方)을 주관하는 리서 한(寒)을 증후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되어 주어지는 도전을 방어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경락이니 신체의 방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때 태양



"바람막이 벽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22년간 본교에서 구두를 닦아온 최수근씨

다행인지 닦아주는 자리를 잡고 구두를 닦고 있는 최수근(38)씨.

전남에서 태어나 3중매 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상경한 최씨는 동향인 선배를 따라 69년부터 구두를 닦아오고 있다. 구두닦이가 학교 직원이거나 임시고용직이 아닌 위치라 학교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22년동안 방학도 마다 않고 구두를 닦아온 최씨는 "구두 한켠에 오백엔 받는것으로는 생계유지조차 힘들어 이 업도 생각했던 바깥쪽 수가

"바람막이 벽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22년간 본교에서 구두를 닦아온 최수근씨

가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사회의 무관심속에 오늘도 지나간 어둠과 자기자신과 싸워나가는...

오랜여정의 양심수들, 그들은 자랑스런 이방에 태어나 보다 나은 사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다 반인 권력자간의 탄압에 의해 깃뚫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인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그들의 배아픈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작지만 소중한 모인인

제가 안 지켜지고 회사 면접시험일이 되면 구두닦이가 꼭 전보다 많이 줄은걸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루 2만원정도의 벌리로 부인, 아들 둘의 식구들과 먹고 살기도 바빠 저축도 할줄 모르는 최씨는 이제 닦아주는 구두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사교로 오른쪽 손목이 잘려 신경이 끊어져 감각이 없어 할 수 장갑을 세제레나 끼고 일을 합니다"라며 보여주는 손목은 병들어가며 케렌 용타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으로 먹고사는 놀이메이

코오롱, 과연 어떤 기업인가?

광섬유와 이리미드 섬유를 비롯한 놀라운 신소재로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선도하는 선두주자 코오롱

각종 고급원사에서 섬유를 포함한 합성의 대부분에서 업계 장성의 위치를 고수해 온 섬유용 코오롱은 강철보다 강한 섬유아ramid, 탄소 섬유, 고강도 코오롱비디올로, 세계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DAT(다차중 오도 테이프)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녹지않는 공의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코오롱의 끊임- 코오롱 230여 명의 연구진이 우리 민족 내일의 첨단과학을 앞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를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서 미래 세기를 선도하는 코오롱

코오롱의 화학산업분야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폴리에스터 필름, 고강도 코오롱비디올로, 세계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DAT(다차중 오도 테이프)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녹지않는 공의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코오롱의 끊임- 코오롱 230여 명의 연구진이 우리 민족 내일의 첨단과학을 앞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신소재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보트까지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미래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로보트산업 등에서 이미 선두주자로 나선 코오롱- 각종 공작기계의 동력을 제어하는 수치제어기 CNC를 비롯 산업용 로보트, 공작자동화 시스템의 첨단제어장치인 PLC와 태이제기 가공분야 등까지 고부가가치 최첨단 산업에 연구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예저정비과 국민생활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해 민족산업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의 우수성과 코오롱맨의 신념으로 무용역량 코리아의 기반을 앞서 다져나가는 코오롱

무역에 대해 무관심했던 36년전부터 코오롱의 수출 역군들은 세계 무역시장을 뚫어내서 MADE IN KOREA의 신뢰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왔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맹활약하는 알래스카에서 코오롱의 무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는 지구촌의 이 지대한 무역 경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오롱은 다른 세기의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까지 건실의 신뢰감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이제 정보통신은 힘과 규모로 인정받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대규모 공사에서 까다로운 해외공사까지 언제나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기술적 명성을 쌓아온 건실의 역군 코오롱- 세계 두번째 ILM 종합 해상공정(광양)시공, 시화 연륙부 시공(부산하철), 세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21세기 건축기술의 총아로 불리는 서울올림픽 주요경기장 등 2경관공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코오롱은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도시의 소양을 이미 구체화하여 건설 한국의 미래를 앞장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까지 건실의 신뢰감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인본 코오롱의 문입니다.

첨단기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통신사업분야, 신용사회를 만들어가는 신용카드사업분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 스포츠사업분야 등 오늘날 물론 다음 세기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상용화하는 코오롱의 서비스산업의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준비이며 현대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노정권은 방중탄압 즉각 중단하라

올해 연행·구속자수 사상 최대 예년의 2배...서울36명, 경주6명

조직사건으로 학생회 체계 와해의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한해동안 연행·구속된 본교 학생수가 서울캠퍼스 36명, 경주캠퍼스 6명 등 총 42명으로 최근 몇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어느해보다 각종 조직사건을 조작한 6공 공안정국 하에서 연행·구속된 학생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일반 시위관련자가 17명, 반미구국전선관련자가 7명, 민학련관련자가 12명이며 경주캠퍼스 경우는 일반시위관련자가 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행·구속자 통계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매년 25명내외였던 시국관련 연행·구속자수가 40명이상 급증했다는 점, 둘째는 치밀한 조작에 의한 조직사건을 터뜨린 점이다.

이는 양·질적으로 크게 성숙한 학생운동에 대해 현 정권이 무더기연행과 치밀한 조작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운동단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연행·구속자의 월별 분류를 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5·9반민자당 시위와 6·10시국 투쟁때가 일반 시위관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계 방학 직후인 7월9일 '반미구

국전선' 사건, 동계방학 직전인 12월5일에 '민주주의 학생연맹' 사건이 있었으며 경주캠퍼스의 경우는 4월30일 대구시경타격 3명, 5월15일 삼진파출소 타격 3명 등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미구국전선'과 '민학련' 사건 모두가 학생회 활동의 핵심인물들을 구속시켰다는 점과 학생회 사업 준비와 이월시기인 7월과 12월에 대대적인 연행을 감행하여 학생운동을 치밀하고 구조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에대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위 학생회는 민가협 등 구속자 어머니회와 연대하여 연행·구속자 현황 파악과 비정기적 일일집회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중적 선전,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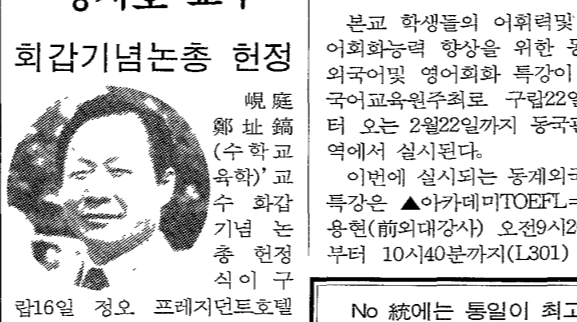


‘조국은 하나’ 지난해 12월12일 김광일교수를 비롯한 북한의 취재진이 우리학교를 기습 방문했다. 보신 손님에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통일 열망으로 곧 하나가 된 우리들, 그리고 안기부원들의 따가운 눈초리, 그러나 우리는 다짐했다. 저 시선들을 뒤집어 열고 기쁨과 통일의 그날은 오고야 말리라고. <김영만기자>

국전선' 사건, 동계방학 직전인 12월5일에 '민주주의 학생연맹' 사건이 있었으며 경주캠퍼스의 경우는 4월30일 대구시경타격 3명, 5월15일 삼진파출소 타격 3명 등이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미구국전선'과 '민학련' 사건 모두가 학생회 활동의 핵심인물들을 구속시켰다는 점과 학생회 사업 준비와 이월시기인 7월과 12월에 대대적인 연행을 감행하여 학생운동을 치밀하고 구조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한편 이에대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위 학생회는 민가협 등 구속자 어머니회와 연대하여 연행·구속자 현황 파악과 비정기적 일일집회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중적 선전, 서명운동,



정지호 교수
회갑기념논총 헌정
岾庭 鄭址鎬 (수학교육학) 교수 회갑 기념 논총 헌정 석이 구

16일 정오 프레저먼트호텔(31층 슈빌트홀)에서 교수, 동문, 제자 및 재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헌정식은 황교수의 약력보고 및 가족소개, 논문 헌정, 축사순으로 이어졌다.

노조 보충협상 난항 거듭 인사규정 개선등 합의못봐

서울캠퍼스 직원노조 보충협상이 학교측과 재단측의 논의 주제가 없는 가운데 2차례의 협상결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노조가 보충협상 안건으로 직원인사규정중 △일반직·기술직의 직급승진제도개선 △기능직 직급체계 전환 △여직원 기능직 3등급 인사제도 전환 등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11월29일과 구립10일 2차례에 걸친 학교측과의 협상이 사용자측 대표인 申國柱총장서리가 불참해 결렬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사립학교법개정과 동국학원 정관 개정으로 실질적 권한이 재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사용자측 교섭

불교전서 보유판 지원 활자미비로 인쇄 어려워

본교 출판부는 불교전서 보유판 제1편 편집을 마치고 간행을 총무과에 의뢰했으나 인쇄소에선 정본과 출판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유판에 관련된 내용은 새로 발간된 자료인 신라시대 상대사의 일승발원문(一乘發願文),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사

동계 외국어 특강 실시 토플-회화등 2월 22일 까지

본교 학생들의 이해력 및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동계 외국어 특강이 2월22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동계외국어 특강은 ▲아카데미TOEFL=주용현(前의대교수) 오전9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L301) ▲이계옥TOEFL=홍정덕(前서강대교수) 오전11시부터 12시20분까지(L301) ▲박성원원어민=안원실(前한대교수) 오전11시부터 12시20분까지(L501) ▲CAMPUS 종합영어·성문종합영어=한홍수(前한대교수) 오후

1시부터 2시20분까지(L301) 등이다. 또한 이번엔 신설된 영어회화특강은 ▲영어회화(초급)=Patricia A. Pierce. 오전9시30분부터 10시45분까지(L304) ▲영어회화(중급)=Patricia A. Pierce. 오전11시부터 12시15분까지(L304) 등이 되고 있다.

마치 대학생들의 행동을 어린아이의 같음을 알릴로 비유하는 등 그야말로 반동 일적인 보도 양태를 보여 엄청난 미움을 샀는데, 더군다나 본교의 모 여학생이 북쪽 기자에게 기념품을 얻기 위해 구걸이라도 한 양 보도한 중앙일보의 칼럼 기사는 본

는 중앙일보의 죽어도 아니 믿을 등악의 투쟁에 먼저 머리 숙일지이다... 소련방문=키노사의 끝속 외교(?) 노대통의 방소회담을 놓고 세계각국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노자신은 '한국 사회초, 부 시다움'이라며 자찬하고 다녔다. 민중운 동탄압, 반 통일지향

하는 한길임을 명심하고 카노사의 끝속의교를 되돌이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뜻학우 일침. 법의 그늘에 묶인 학교당국 ○오래전부터 신규교수 초빙을 준비해오던 학교측은 그명단을 방학을 틈타 공허한 등악서 준비 중 이라고. 그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무공개 일방적원칙(?)에 일각해 특경인을 내장, 각단과 대에 배급(?)하려 한다는데, 아직도 선명한 학교당국 학생간의 믿음의 약속이었던 '동국발전합의문'은 어디로 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은 독재정권과 이에 알아서 기는 관제 언론이었다! 의 열렬한 통일외지 단남에 'No統'의 뒷골은 꽤나 수컷졌구만.' 사이비 언론은 가라! ○구립 12일 북쪽 기자단 방문에 대해 기성 일간지에서 관련 반응을 보였다

가에 대해 본 회전문대를 당혹케 한바 커! 이는 여론조사에도 나타났지만 통일을 가장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독재정권에 스스로 기는 기성언론이라는 점을 관제언론은 명심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지난 88년 본교 학자투를 매도한 바 있

적 정책으로 한반도 반쪽을 썩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이번 소련 방문이 통일의 획을 그었다는 자찬은 그야말로 장안의 웃음거리 일수 밖에 없는데, 외제 좋아하는 졸부들의 대부분 6공은 민중들의 삶과 애원이 결국은 통일을 염원

교 법(사립학교법)대로 하자 는 말은 웬말인가. 이에 본 회전문대주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줄치고 독악이란 썩 없었' 법의 그늘에 묶인들 도 모르고 절정이 탄이 버린 학교당국이 덩더리...

일사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병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태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시추용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문순기 약철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심해의 천연가스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현대는 이제 시베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교원임용에 교과위서 이의제기 학생참여 통한 의견 수렴 요구

91년 신규교수채용문제를 두고 본교 농성과 등 3개파 학생과 교수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농성과 분제의 발단은 지난해학기에 학교당국이 제출한 교수채용공공이 학생들과의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구립3일 신문등 일간지를 통해 교수채용안이 보도되자 학생들이 이에 크게 반발, 5명의 농성과학생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었다. 끝이 5일 농성과는 학생전체의 충분한 교과과정검토및 초

면서 각 과 학생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역교과, 대안 마련 고심 그리고 역교과 학생회는 중앙 근·현대사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1월10일경경 있을 서류심사, 공개강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중 학생들 동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짜 놓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빙교과대안마련 준비기간을 위해 교수채용의 2학기로의 연기를 위한 비상총회를 갖고 연기 결의안을 투표 과반수이상으로 통과 시켰다. 이에 앞서 교수 학생간의 제차례 걸친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교수측은 이번 채용이 사전 농성과 4명의 교수들에 의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지만만 교수총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채용 연기는 불필요 대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교무처장동파의 면담을 통해 예산편성상 채용시기가 1학기든 2학기든 무관하다는 화답을 듣고 서신 등을 통해 학생전체의 참여운동을 펴고있어 교수들과의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또한 체교과 학생회는 구립 26일까지 접수마감되는 교수초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체교과 학생회는 '발대 교수보다 시급한 전필 교수를 먼저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각 과 학생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역교과, 대안 마련 고심 그리고 역교과 학생회는 중앙 근·현대사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1월10일경경 있을 서류심사, 공개강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중 학생들 동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짜 놓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면서 각 과 학생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역교과, 대안 마련 고심 그리고 역교과 학생회는 중앙 근·현대사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1월10일경경 있을 서류심사, 공개강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중 학생들 동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짜 놓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면서 각 과 학생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역교과, 대안 마련 고심 그리고 역교과 학생회는 중앙 근·현대사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1월10일경경 있을 서류심사, 공개강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중 학생들 동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짜 놓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면서 각 과 학생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역교과, 대안 마련 고심 그리고 역교과 학생회는 중앙 근·현대사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1월10일경경 있을 서류심사, 공개강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중 학생들 동원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짜 놓고 있으며 편지를 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생화문화

노정권은 방중탄압 즉각 중단하라

90년 송년 통일음악제에 부쳐

남북의 통일열망이 만나 하나된 자리



문 호 근

(음력연속가·민예총 정책실장)

남북예술인들이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설으로써 민족의 대 화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던가, 남북 거리의 이질감이라는 것이 실상은 별개 아니었다는 것이 체현으로 확인되었다던가 하는 평가는 어려운 데에서 이내 다루어진 바이다.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학생 여러분께 해 드리고 싶다.

한 행사를 평양서 먼저 하고 다음에 서울서 했다면 상호 초청이 교환된 셈이다. 이런 비유는 어떤가? 연세대와 고려대의 정기전이 있는데, 연대가 주최할 때 고려전이라 하고, 고려대가 주최할 때 연고전이라 한다.

그렇다면 북에서 했을 때 '남북 통일음악회', 남에서 했을 때 '북남 통일음악회'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초청자는 주인이고 초청받은 쪽은 손님이다. 주인이 손님을 맞는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북에서 남쪽의 통일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면, 우리쪽에서는 당연히 북의 통일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불러 화합하는 것이 손님을 예우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공연규모 면에서도 같은 반성을 할 수 있다. 북에서 온 예술단이 30여명 정도였다. 그렇다면 남쪽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공연단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북에서는 30여명 초청해 놓고, 주인 쪽에서는 그 몇배가 넘는 인원을 무대에 동원시켜 불평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려 한다면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밖에도 주인으로서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예를 들어 북에서 오는 첫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으로 너무 작은 장소가 선정되어 국내대중과의 만

난해는 대중적 통일운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8·15 범민족대회와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 남북통일촉구대회, 통일음악제 등은 국민대중들에게 통일의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케 했다. 본란에서는 통일음악제에 대한 문호근씨의 견해와 함께 조선음악가 동맹 성동춘 부위원장과 황병기교수 공동작곡의 '통일의 길'을 소개한다.

남을 제한하였다거나, 그 역사적인 음악회의 중계를 심야에 편성하였다거나... 또 있다. 파인 보안 대책 손님용 청해 놓고 그 손님의 면전에서 임수경이 머리를 풀어낸다고나 사진기자를 구타한다거나 하는 행위 등등, 북측의 기술취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들이 임수경 집을 방문하고 싶다면 주인으로서 안

싸워 온 사람들, 그 때문에 피흘린 사람들, 노고를 치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정작 남북의 실질적인 만남에서는 그들은 배제되어 있다.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만남이 차단당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욕에 갇혀 있다. 무대와 객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통일운동과는 관계 없었던 사

까? 그들의 통일 열망이 일시적인 것이긴, 가장된 것이긴 간에 우리는 너무 신경 쓸 것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국민 앞에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곳에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표가 참석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일 열망은 바로 그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통일주체 세력이 현재의 남북교류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하나도 안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류는 바로 우리가 싸워 온 결과로써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 지난해 12월 9·10 일 양일간 열렸던 통일음악제는 민간교류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정부, 국민과의 만남제한 등 반통일적 정책 드러내 현재의 교류는 치열한 통일투쟁의 열매

내해 주면 될 것 아닌가.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몽환한 예외에 어긋나는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현 정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남북교류와 자발적인 화해 분위기 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한적인 교류만을 허용하여 남북관계를 독립함으로써 정부편의대로 물고 가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우리는 사실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해 일하고

말을, 나아가서는 통일운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해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것인가? 우리는 TV를 통해 예술의 전당을 가득 메운 통일 열기를 지켜보면서 억울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한편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 저들이 통일을 저토록 열망했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혹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 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저들이 단지 이북 음악인들 앞에서 통일 열망을 가창하고 있는 것은 아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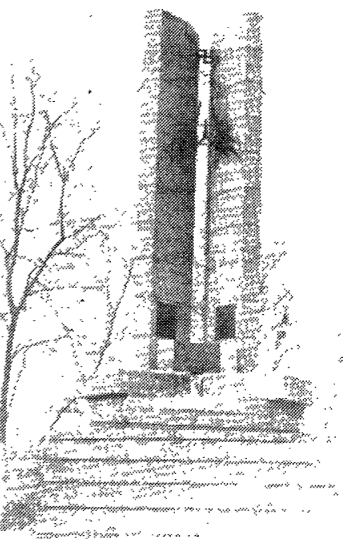
통일 열망이 그들의 통일 열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그들의 통일 열망이 일시적이긴, 가장된 것이긴 상관이 없다. '우리의 통일 열망이 그대로 뜨겁게 지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그것은 일시적이 될 수도 없고 가장된 것이 될 수도 없다. 아니, 저들 현재는 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7월만 거머쥐는 체제의 수립을, 끈질긴 통일 열망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많았던 한해였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 내었다.

동학의 터

동 우 탑

'4월19일 오전 학생들은 속속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느누구의 얼굴에도 테러정치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자! 자유당을 타도하자!" 데모는 노도와 같이 퍼져 나갔다.'(본지 154호)
'65년 천여명의 본교생들은 한 일협정비준에 대해 "제2의 을사조약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들어갔다. 교문을 나선 시위대는 총무로 5기에 이르러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의 시위로 3명의 학생이 구속 조치가 내려졌다.'(교지 22호)
만해광장의 남쪽 끝 언덕에 우뚝 솟은 '동우탑'은 목숨을 내던진 선배열사의 넋을 기리고 있다. 1960년 4월19일, 당시 3·15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혁명의 불꽃으로 타오르던 날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중들을 향해 급작스런 총탄이 날아 들었다.

이로 인해 본교 노회두(당시 법학파3년) 열사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1965년 6월13일, 당시 매국적 한일협정비준체결을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갔던 본교생들은 경찰에 의한 강제 해산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머리에 곤봉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김중배(농학과3년) 열사의 죽음이 이틀후에 전해진다.
동우탑은 1961년 4월7일 노회두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어 1965년6월 김중배 열사가 산화해간 이후 그의 이름이 동우탑위에 새겨지게 된다.
높이 15m에 추모의 뜻을 상징하는 두옥의 돌기둥과 열사를 상징하는 중앙상단의 철제조형물로



이뤄진 동우탑은 해마다 4·19 기념일이 되면 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진다. 조국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산화해간 선배열사의 그 뜻은 동우탑에 기리어져 현재의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다. (문화부)

통일의 길

리 성철 작사
황병기 작곡
성동춘 작곡

Musical score for 'The Path of Unification' with lyrics in Korean and musical notation.

문화인사

제13회 현대시인상 송동균등문 본상수상

한국현대시인협회 제13회 현대시인상 본상 수상작으로 본교 송동균(국문과 58년 주) 등문 시집 '겨울산에 일어난 바람'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제5회 한국자유시인상 박정희등문 수상

올해로 5회에 이르는 한국자유시인협회 제정 한국자유시인상 본상인 본교 박정희(영문과 64년 주) 등문 시집 '우리의 길'이 수상했다. 박정희 등문은 시집 '푸르른 날의 그리움'을 전하로 이번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양여자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해 12월11일 한글회관에서 열렸다.

페이팅

▲신미년 새날의 새날이 밝았다. 여하한 연유가 있던 간에 인류는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해의 출몰과 달의 영회(盈虧)를 살펴 태양력을 만들어 그날 그날의 의미를 만들었다. 오늘날 해가 바뀌고 저마다가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이다. 우리민족은 해가 바뀌는 첫날의 해 기복과 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차에도 지내면서 새날의 의미를 새긴다. ▲따지고 보면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사회구조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삶의 양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 Karl. Marx는 Engels와 같이 쓴 '신성가족'에서 "역사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거대한 재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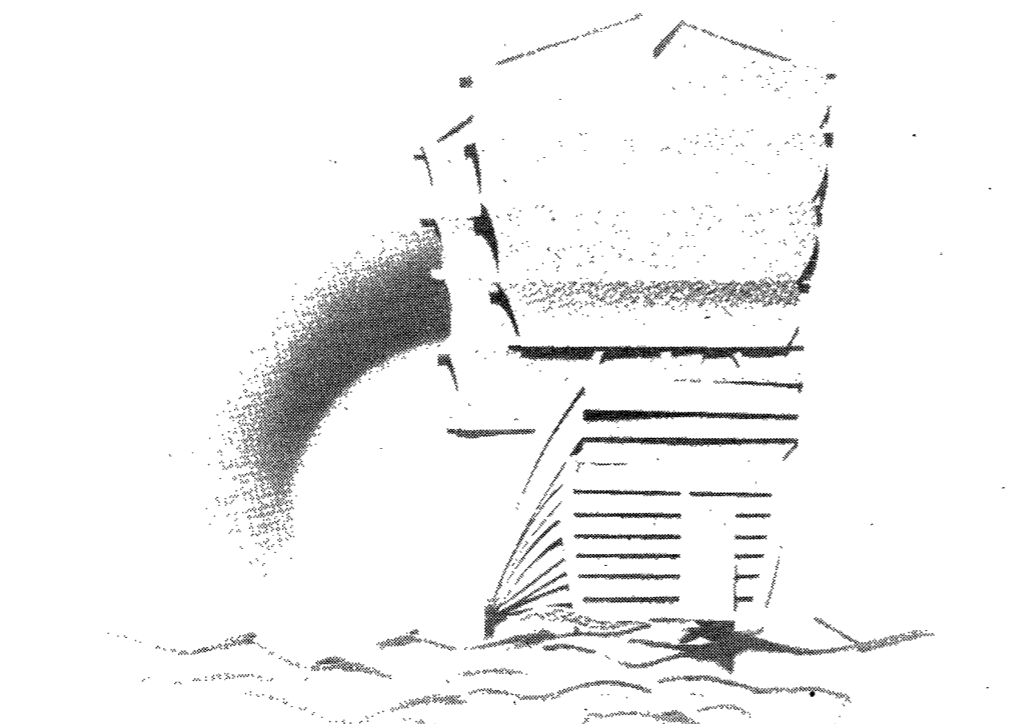
갖지 못했으며, 어떠한 전부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하고 또 소유하고 싸우는 자는 오히려 '인간' 진자로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한 바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회구조가, 삶의 양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날'

오늘은 새날이지만 새날이 아니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진짜 새날은 '조국통일'이 되는 날이라고 주장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남·북부족의 성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통일조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북경이 시안개에서 남·북은 하나임을 느꼈고, 비록 별 성과는 없었지만 남·북고위급회담도 세자로나 성사됐다. 반쪽행사로 치부되었지만 범민족 대회도 열렸고, 범민족연합도 탄생했다. 통일조국의 새날을 향한 거대한 지순한 때를 치열하게 아름다운 투쟁들이 즐기게 벌어졌다. ▲조국의 통일은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남·북한 국민 하나하나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차곡차곡 해나갈 때에만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군축과 평화협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통일조국의 새날을 건설하려면, 을 한해도 될 수 만은 없다. 해어졌던 남·북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고 덕담을 나누는 새날,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신미년 첫날에 그려본다. (珍)

Humorous cartoon strip with dialogue about the New Year and national unity.

근하신년



새바람 안고 떠나는 새해 새바다

새해는 뜻을 보다 높이!
새바람 큰바람 안아
더 멀리 떠나자.
그래서 더 많은 보람
살어 돌아오는 '91년이
되도록,
더 높고 넓은 뜻을 달자.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